

소형교회 성장, '제자훈련/소그룹'이 동력!

지난 호(324호)에서는 소형교회 성도들의 인식을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실태와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장을 지키는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담임목사 4명 중 3명(74%)이 교회 존립을 걱정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41%)은 목회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고민 앞에서 있었다. 특히 월평균 사례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174만 원에 불과해, 사모의 경제 활동과 주변의 도움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이토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동력이다. 이들은 규모의 한계를 제자훈련과 소그룹이라는 '본질적 사역'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었다. 결국 소형교회 목회의 성패는 목회 비전의 공유와 사람을 세우는 본질적 사역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호가 단순히 소형교회의 어려움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목회자의 소진된 마음을 보듬으며 '작지만 강한 교회'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형교회 실태 조사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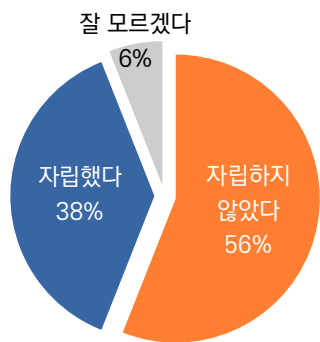
구 분	소형교회 성도조사	소형교회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전국의 50명 미만 소형교회 출석하는 성도	전국의 50명 미만 소형교회 시무하는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400명(유효표본)	총 300명(유효표본)
조사 기간	2025년 09월 19일~2025년 10월 13일	2025년 09월 22일~2025년 10월 3일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3년 국민 종교분포 및 종교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모집단 비율을 추출함)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하나복나라복음DNA네트워크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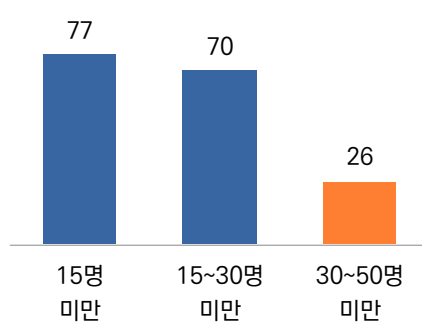
[소형교회 사역 환경] 소형교회 절반 이상(56%), 미자립 상태!

- 소형교회 담임목사에게 시무교회의 자립 여부를 물은 결과, '자립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어섰다. '자립했다'는 응답은 38%에 그쳐, 소형교회 상당수가 여전히 외부 지원이나 자비량 없이는 교회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출석 교인 수 15명 미만'은 77%가 미자립 상태, '15~30명 미만' 역시 70%로 높은 미자립률을 보였다.
- '30~50명 미만' 교회는 자립도가 26%로 급격히 낮아져, 교인 수 최소 30명이 소형교회 자립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시무교회 자립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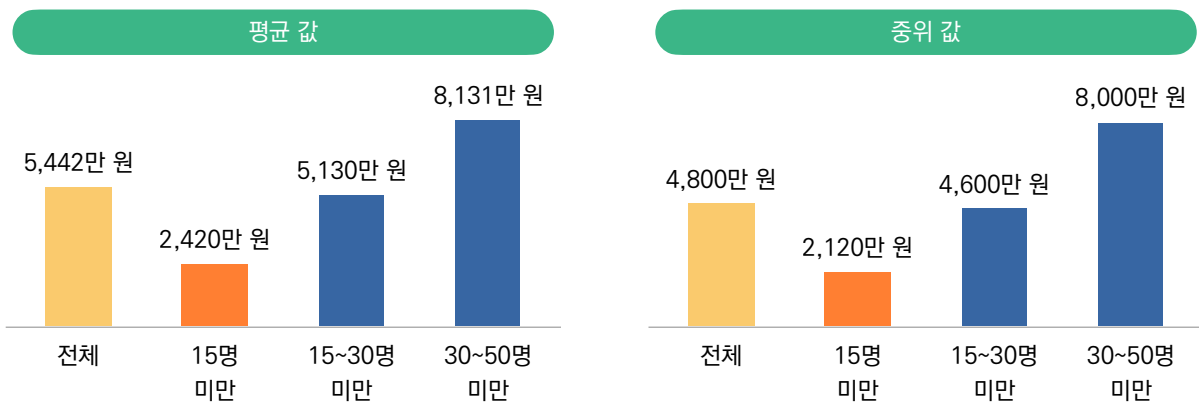
[그림] 미자립 비율 (출석 교인 수 별, %)



연평균 결산 5,442만 원, 중위값은 더 낮은 4,800만 원!

- 소형교회의 작년 한 해 총 결산 규모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5,442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터의 중간인 '중위값'은 4,800만 원에 불과해, 평균치보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재정 규모는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 이는 일부 상위 결산 교회들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소형교회는 연 5,000만 원 미만의 예산으로 교회 운영과 임대료, 사례비를 모두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임을 시사한다.
- 교회 규모에 따른 재정 양극화는 더욱 뚜렷했는데, '출석 교인 수 15명 미만' 교회의 경우 연평균 결산이 2,420만 원으로, '30~50명 미만' 교회 예산(8,131만 원)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작년 교회 총 결산 규모 (소형교회 담임목사, 교회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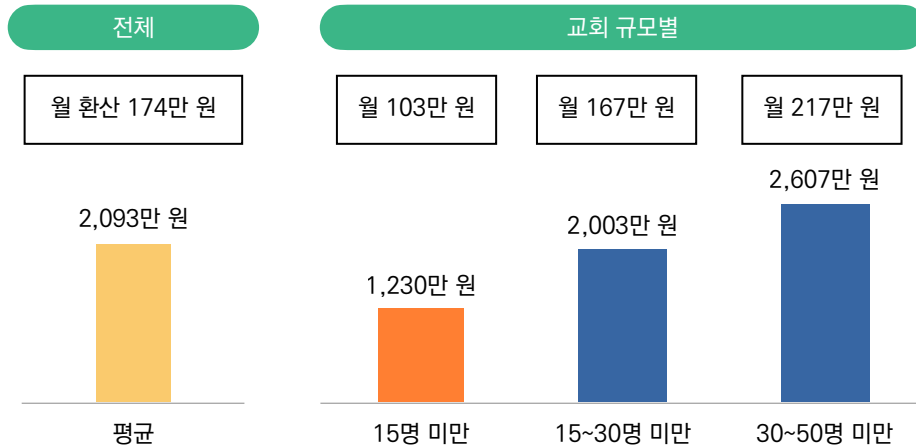


*중위 값 : 데이터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값

소형교회 목회자, 월평균 사례비 174만 원

-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소형교회 목회자의 지난 1년간 사례비 총액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9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74만 원이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월 210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위협받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적 고충은 더욱 컸다. 출석 성도 15명 미만인 초소형 교회의 경우, 목회자 사례비가 월 100만 원 남짓(103만 원)에 불과해 외부의 지원이나 이종직 없이는 목회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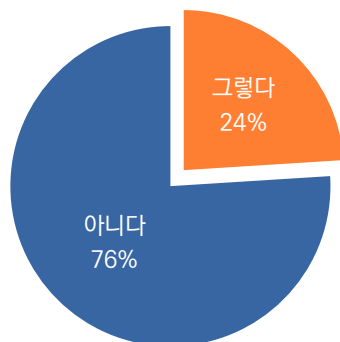
[그림] 지난 1년간 사례비 총액 (교회로부터 사례비 받는 소형교회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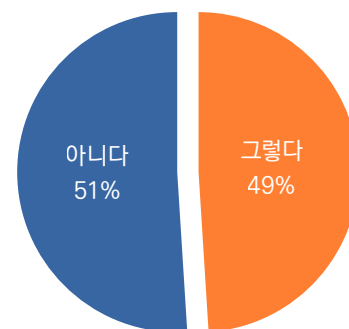
목회자 24%, 사모 49%는 현재 경제활동 하는 중!

- 소형교회 담임목사 중 현재 목회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이종직 목회자'는 24%로 나타났다.
- 사모의 경우 경제활동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소형교회 사모의 절반인 49%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 본인의 겸직 비율(24%)보다 2배 높은 수치로, 소형교회 유지와 목회자의 사역 지속을 위해 사모들이 가계 경제의 실질적인 책임을 분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현재 담임목사의 겸직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그림] 현재 사모님의 직업 생활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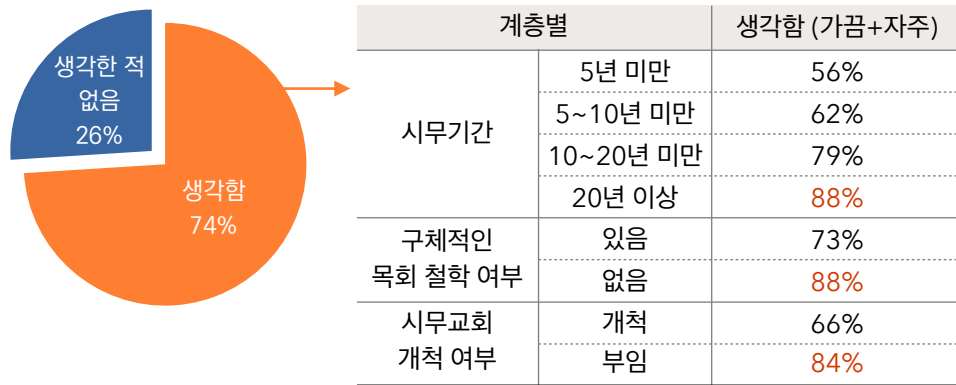
02

[목회적 위기감]

시무기간길수록·목회철학부재할수록 교회생존불안감높아져

- 소형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존립(생존)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74%가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소형교회 목회자 4명 중 3명은 사역 현장에서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실존적인 위기감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셈이다.
- 교회 존립에 대한 걱정은 목회 연차가 길어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무기간 '5년 미만' 목회자는 56%가 존립을 걱정했으나, '10~20년 미만'은 79%, '20년 이상'은 88%까지 치솟았다.
- 또한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없는 목회자(88%)는 있는 경우(73%)보다 존립에 대한 불안이 컸고, 직접 교회를 세운 개척 목회자(66%)보다 기존 교회에 부임한 목회자(84%)가 교회 존립에 대해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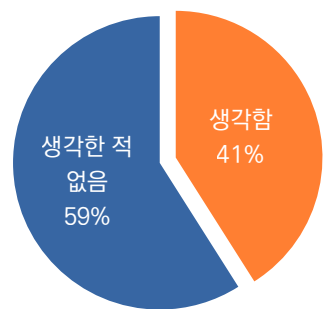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 존립에 대해 걱정한 경험 (소형교회 담임목사)



목회자 41%, 목회 중단 고민한 적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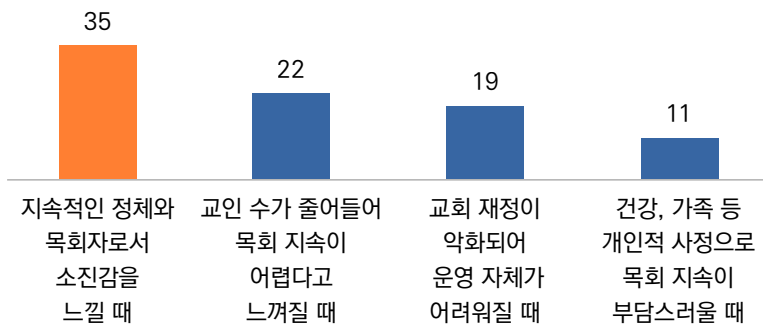
- 소형교회 담임목사에게 목회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41%가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소형교회 목회자 10명 중 4명이 단순한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목회 자체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 목회 중단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목회자의 '내적 에너지 고갈'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을 고려하는 이유로 '지속적인 정체와 목회자로서의 소진감(35%)'을 1위로 꼽았는데, 이는 '교회 재정 악화(19%)'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그림] 목회 중단 고민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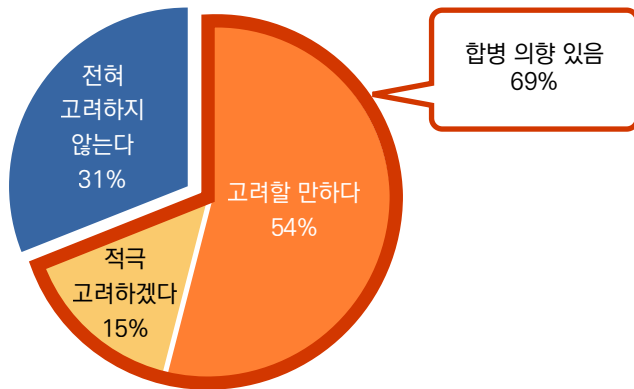
[그림] 목회 중단을 고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목회 중단을 고려한 담임목사, 상위 4개, %)



목회자 10명 중 7명, 교회 합병 의향 있다

- 소형교회 담임목사에게 시무교회의 합병 의향을 묻은 결과, '적극 고려하겠다(15%)'와 '고려할 만하다(54%)'를 포함해 무려 69%가 합병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교회 목회자 10명 중 7명이 독자적인 생존 노력보다 타 교회와의 합병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 '적극 고려하겠다' 비율은 시무기간이 길수록, 시무교회가 대도시에 위치할 경우,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 많은 소형교회 목회자가 합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는 재정적 부담을 분산하고, 인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사역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고뇌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이제는 소형교회 목회자 가운데 교회 합병이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시무교회 합병 의향 (소형교회 담임목사)



[그림] 시무교회 합병 '적극 고려' 비율 (소형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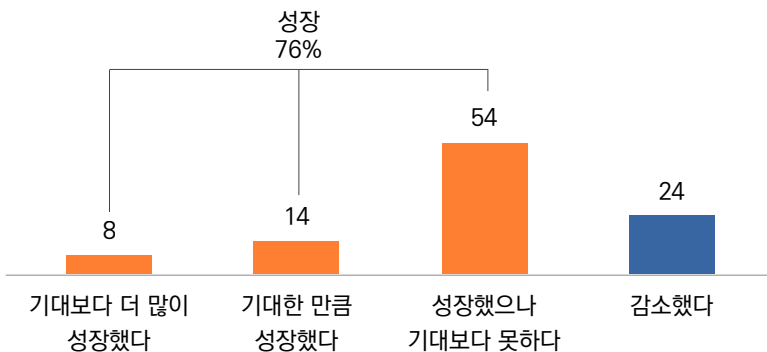
연령	49세 미만	12%
	50대	18%
	60세 이상	12%
시무교회 위치	대도시	19%
	중소도시	11%
	읍/면	3%
시무기간	5년 미만	6%
	5~10년 미만	9%
	10~20년 미만	19%
	20년 이상	20%

03

[양적 성장 평가] 소형교회 4곳 중 3곳(76%), 양적 성장 경험!

- 시무교회 교인 수의 양적 성장 여부를 묻은 결과, '기대보다 더 많이 성장' 8%, '기대만큼 성장' 14%, '기대보다 못 하나 성장함' 54%로, 소형교회 4곳 중 3곳(76%)은 양적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감소했다'는 2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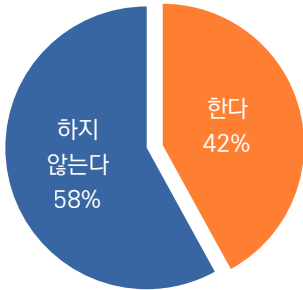
[그림] 시무교회 양적 성장 평가 (소형교회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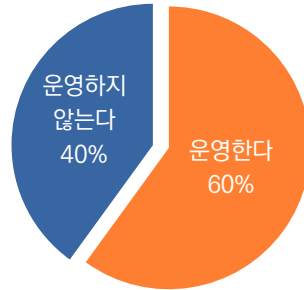
소형교회 중 '제자훈련 시행' 42%, '소그룹 운영' 60%!

- 소형교회의 사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자훈련'을 시행하는 교회는 42%,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는 60%로 나타났다.

[그림] 제자훈련 시행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그림] 소그룹 운영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소형교회의 성장, '제자훈련/소그룹'이 동력!

- 성장하는 교회와 감소하는 교회 사이에는 훈련 체계의 유무가 확연한 차이를 만들었다. 소형교회의 경우 교인 수가 늘어난(양적 성장) 교회일수록 소그룹/제자훈련 있음 비율(각각 87%, 82%)이 높았고, 반면 '감소하는 교회'는 소그룹/제자훈련을 갖추지 못한 비율(각각 32%, 34%)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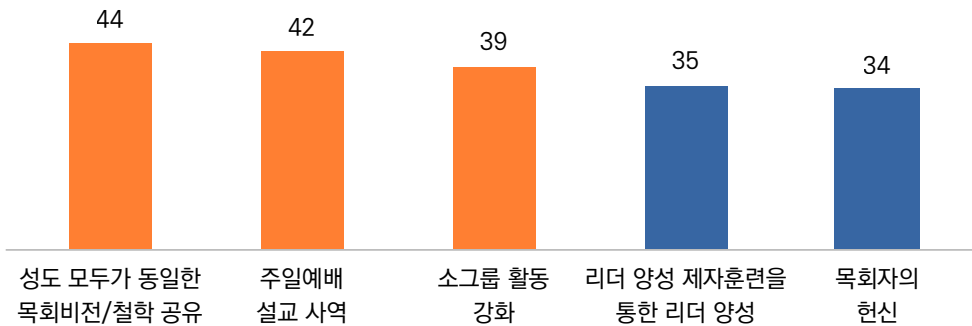
[표] 계층별 양적 성장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1+2순위, %)

		성장	감소
소그룹	있음	87%	13%
	없음	68%	32%
제자훈련	있음	82%	18%
	없음	66%	34%

소형교회 성패의 열쇠, '비전 공유/설교/소그룹'!

- 소형교회 목회자들이 꼽은 목회 핵심 요소(1+2순위)는 '목회 비전/철학 공유(44%)', '주일예배 설교(42%)', '소그룹 활동 강화(3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세 지표는 모두 오차범위 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소형교회 사역을 지탱하는 '3대 핵심 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 이는 지난 주 넘버즈에서 제시한 소형교회 성도의 교회 만족 이유, 비전, 선교, 교제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 특히 주목할 점은 전통적인 핵심 사역인 '설교'만큼이나 '성도와의 비전 공유'와 '소그룹 활동'이 비등한 비중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동체일수록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 '철학의 공유'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돕는 '소그룹'이 목회 성패의 결정적 요인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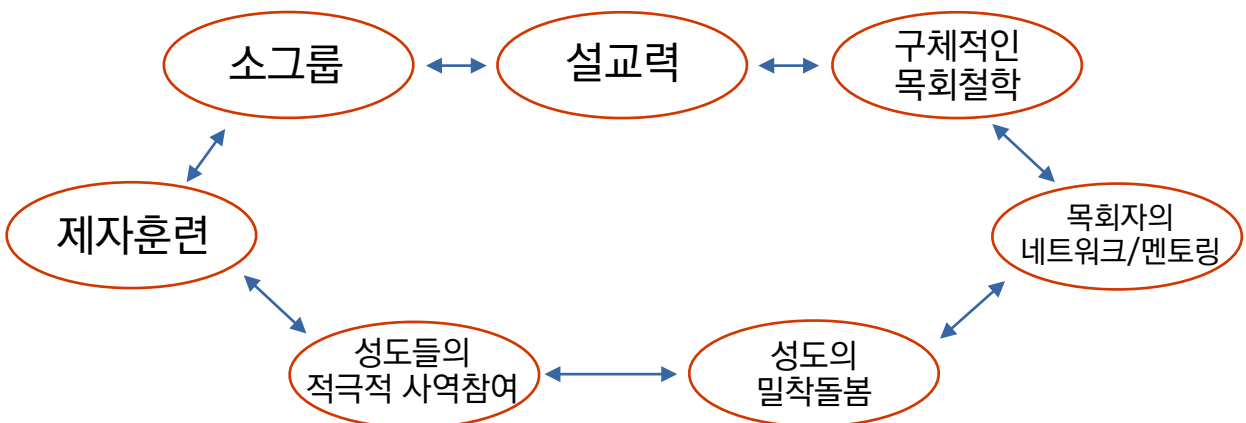
[그림] 소형교회 목회의 핵심 요소 (소형교회 담임목사, 1+2순위, %)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DNA 7가지!

-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핵심 특성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활성화'된 교회였고, 목회자는 '설교능력'과 '구체적인 목회 철학을 보유'한 경우, '목회자 간 네트워크/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와 '성도 간 세심한 돌봄'이 있는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7가지 핵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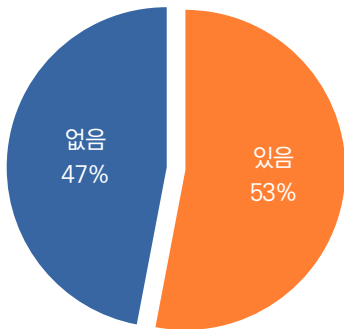
04

[목회자 개인의 삶과 만족도]

목회자모임있는소형교회목회자,제자훈련·소그룹운영비율높아

- 소형교회 목회자 중 정기적 목회자 모임이 있는 비율은 53%로 절반을 약간 상회했다.
- 특히 목회 만족도가 높은 경우(61%) 목회자 모임 참여율이 크게 높았고, 제자훈련(60%)과 소그룹(59%)을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이는 소형교회 목회자가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 목회자 모임이 있는 경우 제자훈련, 소그룹 등 그 교회 사역 활동화가 더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정기적 목회자 모임 여부 (소형교회 담임목사)



[표] 계층별 '정기적 목회자 모임 있다' 비율 (소형교회 목회자)

계층별		모임 있음
목회 만족도	만족	61%
	불만족	27%
양적 성장 여부	성장	54%
	감소	47%
제자훈련	있음	60%
	없음	47%
소그룹	있음	59%
	없음	44%

목회자 간 교류/나눔, 소형교회 목회자의 개인생활 만족도 높인다

- 목회자의 일상 생활 만족도에서 '개인생활 만족도'를 보면 교회의 양적 성장, 소그룹 운영 등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나, 가장 높은 만족도 요인은 '목회자 모임 여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회자 모임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 개인생활 만족도가 63%였으나, 그렇지 않은 목회자의 만족도는 43%에 불과해 20%p나 격차가 벌어졌다.
- 이는 목회자 네트워크나 멘토링이 목회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소형교회 목회자의 일상 생활 만족도 ('만족하다'(매우+약간 만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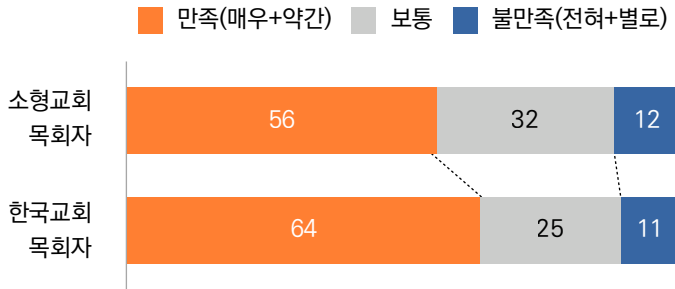
		부부관계	교회생활(사역)	영성 생활 (묵상, 기도 등)	전체적 개인 생활 만족도
전체		69%	60%	51%	54%
교인들의 양적 성장	성장	74%	67%	54%	58%
	감소	56%	40%	42%	39%
교인들의 질적성장	성장	77%	75%	60%	63%
	성장하지 않음	60%	42%	40%	42%
시무교회 제자훈련 여부	있음	77%	66%	54%	54%
	없음	64%	56%	49%	53%
목회자 모임 여부	있음	74%	69%	58%	63%
	없음	64%	51%	44%	43%
소그룹 운영 여부	있음	75%	64%	55%	58%
	없음	60%	55%	45%	48%

*5점 척도

소형교회 목회 만족도, 한국 교회 평균보다 낮아

- 소형교회 담임목사의 목회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매우+약간)'한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학목협)에서 발표한 전체 목회자 평균 만족도(64%)보다 8%p 낮은 수치다. 소형교회 목회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현재 목회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12%), 중립적인(보통, 32%)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림] 목회 만족도 (%)



제자훈련·소그룹·정기적 목회자 모임 있는 경우 목회 만족도 높다!

- 인구통계적 특성별 목회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 비율은 '60세 이상 목회자', '읍/면 지역', '시무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개척보다 '부임'한 경우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이번에는 목회적 특성별 '만족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제자훈련/소그룹이 있고', '구체적인 목회 철학이 있는 경우', '정기적 목회자 모임이 있는 경우'에 목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목회 만족도 (소형교회 목회자, '만족한다' 비율*)

인구통계학적 특성			목회적 특성			
구분	계층별	만족한다 (매우+약간)	구분	계층별	만족한다 (매우+약간)	
연령	49세 미만	63%	시무교회 제자훈련 여부	있음	64%	
	50대	54%		없음	50%	
	60세 이상	46%	구체적인 목회 철학 여부	있음	59%	
시무교회 위치	대도시	58%		없음	32%	
	중소도시	59%		정기적 목회자 모임 여부	있음	65%
	읍/면	49%	없음		46%	
시무기간	5년 미만	75%	소그룹 운영 여부		있음	61%
	5~10년 미만	64%			없음	49%
	10~20년 미만	50%	시무교회 개척 여부	개척	66%	
	20년 이상	44%		부임	44%	

*5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소형교회 성장, '제자훈련/소그룹'이 동력!

- 성장하는 교회와 감소하는 교회 사이에는 훈련 체계의 유무가 확연한 차이를 만들었다. 소형교회 중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제자훈련 있음 비율(각각 87%, 82%)이 높았고, 반면 '감소하는 교회'는 소그룹/제자훈련을 갖추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DNA 7가지!

- 성장하는 소형교회의 핵심 특성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먼저 '소그룹과 제자훈련이 활성화'된 교회였고, 목회자는 '설교능력'과 '구체적인 목회 철학을 보유'한 경우, '목회자 간 네트워크/멘토링 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사역 참여'와 '성도 간 세심한 돌봄'이 있는 교회일수록 부흥하는 양상을 보였다.

3. 목회자 간 교류/나눔, 소형교회 목회자의 개인생활 만족도 높인다!

- 목회자의 일상 생활 만족도에서 '개인생활 만족도'를 보면 가장 높은 만족도 요인은 '목회자 모임 여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모임이 있는 목회자의 경우 개인생활 만족도가 63%였으나, 그렇지 않은 목회자의 만족도는 43%에 불과해 20%p나 격차가 벌어졌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목회 멘토링 (김관성/최병락 저, 두란도)

관련 성경 구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소형교회 목회가 처한 현실과 동시에 그 안에 숨은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적지 않은 소형교회 목회자(41%)가 목회 중단을 고민할 만큼 정서적·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제자훈련과 소그룹이라는 '사람을 세우는 구조'를 분명히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규모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소형교회의 회복은 외부 환경을 탓하기보다, 공동체 안에 훈련의 체계를 세우고 관계의 밀도를 높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소진을 점검하고, 혼자가 아닌 동역 구조 안에서 사역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 간 네트워크와 멘토링은 정서적 지지와 영적 재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동료 목회자들과의 교제와 나눔은 사명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고,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동시에 설교와 비전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명히 제시하여, 성도들이 수동적 참여자가 아닌 적극적 사역 주체로 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소그룹 또는 1:1 제자훈련을 통해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세우는 것은 소형교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강점이다. 이러한 제자훈련을 통해 제대로 된 한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소형교회의 약점을 보완하고, 체계성과 지속성을 구축하는 길이다.

또한 설교는 성도들의 교회 이탈을 막는 강력한 요인이다. 목회를 위한 투자에 있어 설교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이유이다.